

분별없는 이상향 ‘大同세상’ 불교적 인식과 유사

불교로 읽는 古典

강유웨이의 <대동서(大同書)>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이상향, 모두가 복되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향에 대한 스케치의 내용은 동서와 고금에 따라 다르다. 처해 있는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척점에 이상향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토마스 모어(1477~1535)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토마스 모어는 중세적 사회질서에서 근세적 사회질서로 막 옮겨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중세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중세에서 근세사회로의 전환기 사회에 살고 있었다. 그의 유토피아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의 내부에 잉태되고 있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그렇게 그려낸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이상국가 혹은 기독교 ‘천년지복설(千年至福說)’의 계승이자 변형이기도 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그려낸 이상향의 모습에는 그 이전의 유토피아론들과는 달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 아편전쟁 직후에 태어나 민국의 초기까지 중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이 중국의 정치사상가 역시 중국판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그의 이상세계에 대한 스케치를 담고 있는 <대동서(大同書)>는 그의 나이 불과 스물 일곱이었던 1884년에 처음 쓰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지면에 등장한 것은 1913년이다. <대동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략히 그의 삶과 근대 중국의 역사를 언급하기로 하자.

1858년 3월, 광동성 남해현의 전통있는 집안에 태어난 강유웨이는 어려서 유학을 배운다. 그의 초년은 대단히 전통적이어서 25세에 과거시험에 낙방할 때까지는 그의 삶은 온통 유가의 정신으로 점철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과거시험에 낙방할 즈음의 그는 현실의 가혹함에 눈을 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불교와 도교는 물론 서양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진다. <대동서>가 지면에 공개된 것은 먼 훗날인 1913년의 일이지만, 서문에 실린 그의 말대로라면 ‘대동세계(大同世界)’에 대한 그의 스케치는 이 시기의 다양한 탐색이 낳은 결과물일 것이다.

그는 이 즈음에 만목학당(萬木學堂)을 세우고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 등의 제자들에게 변법론을 가르치는 한편 여러 번 정부에 상소를 올려 개혁을 촉구한다. 그러한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 바로 1898년의 변법개혁이었다. 그러나 강유웨이가 주역이 되고 단쓰릉(譚嗣同, 1866~1898) 등이 함께

참여했던 이 청 말의 정치적 실험은 서태후와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을 받으면서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된다.

이 실패 후, 강유웨이는 영국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홍콩으로 피신했지만, 변법개혁에 함께 했던 단쓰릉이 불과 33세의 나이에 처형되는 등 개혁세력이 힘을 잃으면서 청나라는 역사의 저편으로 쓰러지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쑨원(孫文)을 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역시 위안스카이의 권력욕에 휘말려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되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서구 열강의 제물로 전락하게 된다. 강유웨이의 <대동서>가 지면에 공개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내부의 부패와 외부 열강의 침탈이 점철되면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중국 더 정확히는 청나라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급격하게 중국인들의 삶이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을 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중국판 유토피아 꿈꾼 강유웨이 <대동서>에서 근대 이상향 그려

이상향 구현, 고통 극복에 있어 사회·제도적 모순이 고통 유발해 쟁점·해결 ‘사상제’ 방식 차용 治者 관점의 이상향 근원적 한계도

그것이 쇠락해가는 청나라 말기를 살아야 했던 사회화적 자정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 강유웨이가 당면했던 현실이었다. 불교와 도교 그리고 서양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탐색의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던 강유웨이의 지적 모험은 그래서 의미할 수 없는 현실의 결과였고, ‘대동 세계’라는 유교적 이상향을 이룸에서라도 찾고자 했던 그의 꿈은 그래서 다분히 복고적인 일면마저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그가 그려낸 대동 세계는 이념은 유교의 전통에서 가져온 것이었지만, 그 방법론적 장치와 궁극적인 지향은 불교로부터 이끌어낸 것이었다. 여기에 우리가 불교의 눈으로 그의 <대동서>를 다시 읽어야 할 필요가 주어진다.

<대동서>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유교적 이상세계인 대동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강유웨이의 모색을 담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강유웨이가 부딪혔던 현실의 모순이 부각되어 있다. 현실의 자각, 또는 현실에 대한 직시는 삶의 변혁에 근원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불교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획득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궁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강유웨이가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는 자신의 관점을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모습. 중국 근대 사상가인 강유웨이는 절곡의 중국 근대사를 직접 겪으면서 중국판 이상향의 도래를 꿈꿨다. 그의 저서 <대동서>는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사상적 기반이 담겼다. 현실의 모순이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사상적 장치는 불교에 가깝지만 통치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드러내는 것은 확연히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동서>의 구성부터가 그러한데, 전체 10부 중에서 갑부(甲部)는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이라는 제목 아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을부(乙部)부터 신부(辛部)까지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마지막 계부(癸部)는 대동세계의 삶의 양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곧 불교 논서 일반의 고집 멸도 사성제의 논의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유웨이는 현실의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 세계는 모두 우환뿐인 세상이고, 천하의 인간들은 모두 격정에 싸여 있을 뿐이며,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모두 죽어갈 것뿐이다. 푸른 하늘 넓은 땅이 커다란 도살장이며, 커다란 감옥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이 글의 원문 인용은 이성이 옮기고 을유문화사에서 출판한 <대동서(大同書)>에 의거하였다.)

그가 살아간 세상이 전환기-사실 역사의 전환기란 대부분의 피지배층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기대감만 남기는 시대이다-였던 만큼, 더군다나 중국이 전환의 주체가 아니라 전환의 객체였기 때문에 승자로서의 포식자가 아니라 패자로서 피식자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중국 인민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런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

에 대한 탐색결과를 다음의 아홉 가지의 차별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①국계(國界, 영토와 부락을 나눔) ②급계(級界, 신분의 귀천과 청탁(淸濁)을 나눔) ③종계(種界, 피부색으로 황인종 백인종, 갈색인종, 흑인종으로 나눔) ④형계(形界, 남자와 여자를 나눔) ⑤가계(家界, 부자와 부부, 형제의 친분을 사사롭게 함) ⑥업계(業界, 농업·공업·상업의 개인 산업을 됨) ⑦난계(亂界, 불평(不平)·불통(不通)·부동(不同)·불공(不公)한 법을 됨) ⑧유계(類界, 사람·새·동물·곤충·물고기 등의 구별이 있음) ⑨고계(苦界, 고통이 고통을 낳아 대대로 고통이 끊이지 유전되어 생각할 수도 없음)

강유웨이는 가지가지의 분별하고 차별하는 양상들이 괴로움을 낳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근본원인 곧 탐·진·치 삼독을 분별/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괴로움의 소멸은 그러한 아홉 가지의 차별(九界)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달성되며, 그 차별을 없애는 과정은 사상제의 도성제 곧 팔정도에 닿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강유웨이의 도성제 곧 아홉 가지 차별을 없애는 길은, 개인의 자각 곧 정견(正見)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 그것과 궤적을 달리 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차별을 없애는 길은 국가·계급·인종·남녀·가정·산업·난계(亂界)·유계

(類界)·고계(苦界)의 소멸이라는 순서로 설파된다. 꿈이 생각해보면 개인의 자각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인간 삶의 괴로움이라는 실존적 현실이 초래되는 원인과 그 원인의 소멸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흔히 개업(個業)과 공업(共業)의 문제를 말하곤 한다. 강유웨이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아홉 가지의 차별과 아홉 가지 차별의 해소는 이 중에서 특히 공업(共業)에 치우쳐 있는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른바 제도화된 차별에 의해 인간세상의 괴로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제도화된 차별을 없애므로써 인간 개개의 괴로움까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강유웨이의 관점인 셈이다.

이 같은 생각은 강유웨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존의 개인’으로서 인간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점은 불교가 괴로움이라는 현실에 부딪친 실존적 인간의 고뇌로부터 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궤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의 삶이 관료로서의 입신양명에 바탕한 세상 다스리기를 꿈꾸는 유교적 입세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강유웨이가 부딪친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은 자신 스스로 느끼고 체험한 삶의 현실로부터 오는 ‘괴롭다’라는 자각이 아니라, 치자(治者)로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백성의 괴로움이라는 피상적 현실이었던 것이 아닐까. 따라서 그가 꿈꾸었던 이상 세계 역시 치자(治者)의 통치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세상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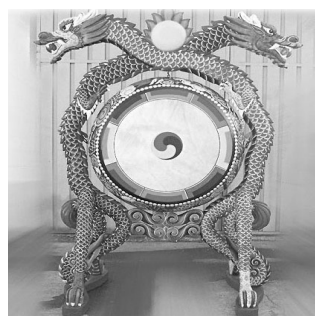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등지는 사람을 도적으로 여기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없애는 것을 공(功)이라 여긴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사람은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지극히 어질지 못한 존재다”라는 강유웨이의 지적은, 전통적으로 사(士)와 민(民)을 구분했던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관점의 한계를 보여준다. 곧 각종 제도적 차별이 초래하는 괴로움과 그 해소를 주장하면서, 막상 그 스스로는 치자(治者)로서 피치자(被治者)를 바라보는 분별/차별의 입장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가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 무술변법이 백일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서 오히려 더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그가 꿈꾸었던 대동의 이상세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역사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주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민중을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불교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능동적 주체로서 자각하는 이상세계를 그린다. 그리고 한 개인의 자각이 한 개인의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의 자각으로 자리 매김하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 당면하는 현실 어디에서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참여어간(隨處作主 立處皆眞) 삶이 온전히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강유웨이가 그리고자 했던 대동 세계는 불자들이 그려내야 할 대동 세계에서는 일정 부분 유평적이어야 한다.

양 지국 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